

작거나 사소한 것, 부족한 것과 잡동사니는 나를 더 좋은 곳으로 이끈다.

한 시절, 나는 가까운 사람을 관찰하고 그가 살아낸 시간을 탐험하는 작업을 제작했다.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통해 전해진 이야기와 기억을 통해, 때로는 살아보지 못한 시대의 양식과 자료를 통해. 어딘가에서 쓰이고 남은 재료들과 함께. 대체로 1980년대 만들어진 자료를 보며 시간을 흘려보냈다. 많은 것을 만들어내지는 못했지만, 많은 것들과 마주칠 수 있었다. 나의 엄마와 같은 시기를 살던 20대 여성의 이야기. 일과 사랑에 관한 시시콜콜한 이야기. 성공담이 아니라 실패담이 담긴 꾸러미. 낭만적인 미래를 약속하는 80년대 한국 사회의 약속 같은 것들. 어쩌면 역사라는 거대한 울타리 안에 포함되기는 대체로 부족하게 여겨지는 것. '마음'이라 뭉뚱그릴 수 있는 것.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마치 잡동사니와도 같은 것...

누군가의 삶을 더 정확하게 알고 싶다는 동기는 '잘 보이지 않거나 중요하지 않은 잡다한 것'을 더 잘 보이게 하는 방법에 관한 관심으로 확장됐다. 이 관심을 바탕으로 제작한 2022년까지의 작업은 누락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것을 가시화하기 위한 일련의 실험을 담는다. 작업은 주로 영상으로 완결되고, 아크릴, PLA 프린팅, 종이 등 여러 재료를 엮어 만든 설치 작업이 될 때도 있다. 모든 작업 과정에서 수집한 자료를 편집한다. 자료의 순서를 바꾸는 재배열, 이질적인 출처에서 찾은 자료를 한데 엮는 리믹스(remix), 그리고 필요시 촬영한 이미지를 이어 붙인다. 대체로 캠코더를 이용해 1인칭 시점으로 촬영하거나, 섬세한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시네마 카메라로 촬영했다.

내게 편집은 손을 더럽히는 일이다. 낡은 신문 지면을 넘기면 오래된 잉크가 손에 배곤 했다. 남대문의 우표상에서 옛 엽서를 뒤적거리기도 했고, 지금은 생산되지 않는 오래된 기계를 찾아 작업실에 들여놓곤 했다. 누군가를 찾아가 이야기를 듣거나, 누군가의 기억 속 이야기에 손을 뻗어 이야기를 건져내고, 먼지를 털어냈다. 필요에 따라 이것들을 매끈하게 가공해 멋을 더하거나, 아주 조금씩 잘라내 다른 곳으로 옮겼다. 편집을 마치면 그것들을 감상하기에 가장 알맞은 방식의 상영 방식을 고안하거나 지지 구조를 만들곤 했다. 희미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것이 조금 더 보일 수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몇 개의 작업을 완성한 뒤 나는 삶은 또렷한 선이 아닌 잡다한 것의 모음임을 깨달았다. 연약하고 희미한 것. 구불구불하고 삐뚤빼뚤하고 어색한 것. 낡아버려서 더 이상 언급되지 않고 쓰임새가 없어 보이는...

2023년부터 나는 기존의 관심사를 더 잘 드러낼 수 있는 ‘슈퍼8’(Super 8) 필름을 연구하고 있다. 슈퍼8은 1965년 미국 코닥(Kodak)에서 만든 아날로그 비디오 필름 포맷으로, 8 mm의 너비와 약 50 ft(약 15 m) 길이를 가지며, 카트리지당 약 2분 30초 분량의 영상을 찍을 수 있다. 이 영상은 18 fps(frame per second)의 프레임 속도로 기록되는데, 표준 영화나 비디오가 채택하는 24 fps, 30 fps에 비해 다소 적은 프레임을 포착한다는 점이 독특하다. 또한, 이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은 기술적 문제로 인해 소리를 담을 수 없다. 영상도 현상과 스캔을 거친 후에야 비로소 확인할 수 있다. 어설프고 번거로운 영상이다. 그러나, 이는 낯설고 독특한 것으로, 프레임 안이 아닌 바깥을 보게 한다.

최근 레트로와 빈티지의 유행과 함께 아날로그 스타일 이미지가 유행하며, 슈퍼8 영상 역시 재출현하고 있다. 허나, 이는 디지털 필터를 활용하거나 이미지의 차원에 머무르는 ‘형식적 전유’에 가깝다. 스타일을 취해 과거의 인상을 재현하는 것은 간단하지만, 옛 미디어가 작동하는 방식을 따르는 일은 더욱더 번거로워졌다. 나는 이 차이를 인식하며, 낡거나 쇠퇴한 것처럼 여겨진 매체를 다시금 활용하고자 한다. 내게 ‘부족한 것’은 그 자체로 충분한 것이자 새로운 가능성을 가진 것이다. 손쉽게 무엇인가를 만들 수 있는 환경 아래 나는 이 번거로운 것과 한동안 함께할 것이다.

